

접속법 보문소와 보편 문법*

심 상 완

Universidad Autónoma de Madrid, 서어학

0. 서론

지금까지 한국어는 스페인어, 불어, 이탈리아어, 까탈란어 등과 같은 로만스 언어와 달리 명시적인(overt) 접속법 형태가 없는 언어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영어의 I demand/demanded that the students *be* here on time과 같은 문장에서 공형태소(null morpheme) (혹은 조동사 should)가 접속법에 '상응' 하는 요소로 간주되듯이 보편 문법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어도 어떤 형태로든 접속법 혹은 이에 상응하는 형태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한국어에서도 주절 술부의 종류에 따라 내포절에 직설법/접속법 구분이 명시적으로 나타나며 다만 로만스 언어와 한국어의 차이는 후자의 경우에는 접속법이 내포절 동사에 표시되어 나타나는게 아니라 내포절 보문소에 나타남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국어의 접속법 보문소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제안은 주로 주절 동사가 '원하다', '바라다', '기대하다' 와 같은 원망(願望) 동사(volitional predicates)인 경우에 국한되었음을 미리 밝혀둔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1장에서는 한국어의 보문화 현상을 살펴보고 그 중 한 유형인 보문소 '-기'에 대한 기존의 분석을 살펴본다. 제 2장에서는 이 보문소가 접속법 보문소라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제 3장에서는 서어의 경우 주절 동사가 원망 동사인 경우에 나타나는 이접 지시

* 지면 관계상 많은 부분을 생략되었음을 밝혀둔다. 자세한 내용은 심 상완(1994)를 참조하기 바란다.

효과(disjoint reference effect)가 한국어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 것에 주목하여 그 이유가 한국어 접속법의 독립적인 시제에 기인함을 밝히고자 한다. 제 4장에서는 접속법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내포절의 부정 양화사 허가와 관련한 문제를 다룬다.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이 제시된다.

1. 한국어의 '보문화'

1.1. 여러가지 유형의 보문소

아래에서 보듯이 한국어는 주절 동사에 따라 내포절을 이끄는 보문소가 달라진다.

- (1) a. 철수는 [영희가 똑똑하다고] 말한다/생각한다.
 b. 철수는 [영희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원한다.
 c. 철수는 [영희가 시험에 떨어졌음]을 알았다/몰랐다.
 d. 철수는 [영희가 아픔]이 유감스럽다.

(1a)에서 처럼 주절 동사가 인지(epistemic)를 뜻하는 경우에는 보문소 '-고'를 선택한다.¹⁾ (1b)에서 처럼 주절 동사가 願望-의지(volitional)를 나타내는 경우는 보문소 '-기'가 나타난다. (1c)에서 처럼 주절 동사가 사실(factive)을 뜻하는 경우에는 주로 '-음'이 쓰인다. 그리고 (1d)에서 처럼 주절 동사가 사실-감정(factive emotive)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역시 주로 '-음'이 쓰인다.

그런데 (2)와 (3)에서 보듯이 '-고'는 주절 술부가 願望-의지, 사실, 사실-감정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나타날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기', '-음' 역시 주절 술부가 인지동사인 경우에는 출현할 수가 없다.

1) '-고'가 보문소라는 논의에 대해서는 윤종렬(1990), 강명운(1988)을 참조하기 바란다.

- (2) a. *철수는 [영희가 공부한다고] 바란다
 b. *철수는 [영희가 공부한다고] 알았다/몰랐다
 c. *철수는 [영희가 공부한다고] 유감스럽다
 (3) a. *철수는 [영희가 똑똑하기]를 말한다/생각한다.
 b. *철수는 [영희가 똑똑함]을 말한다/생각한다.

이같은 사실은 보문소의 선택은 주절 동사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인지동사는 ‘-고’ 만을 허가하고 願望-의지, 사실, 사실-감정을 뜻하는 동사는 ‘-기/-음’ 만을 허가한다는 사실이다.

아래 1.2에서 ‘-기’를 중심으로한 기존의 분석을 살펴보기로 하자.

1.2. 기존의 분석

‘-기/-음’은 전통적으로 명사화소로 가정되어왔다(cf. 임홍빈(1974), 홍종선(1983), 권재일(1981), 채완(1979) 등). 이같은 사실은 동사-명사 복합어에서 이 문법적 요소가 동사의 명사화소(nominalizer)로서 사용된다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다. 다음이 그 예들이다.(cf. 강명운(1988))

(4) 줄넘기, 보물찾기

이러한 ‘-기’의 사용을 확대시키면, 다음과 같은 ‘-기’의 용법에서 ‘-기’가 실제적으로 문장을 명사화하는 것이라고 제안할 수 있다.

(5) 철수는 [영희가 집에 가기]를 바란다.

즉, 이같은 접근법에서는 명사화소란 어떤 범주를 명사적 범주로 바꾸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5)에서는 내포문에 ‘-기’가 붙음으로써 문장이 명사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강명운(1988)에서 지적되었듯이 이 ‘-기’가 진짜 명사화소 인지는 의심이 간다. 그는 영어의 동명사 ‘-ing’

과 국어의 ‘-기’를 비교함을 통해 어미 ‘-기’가 명사화소라는 기존의 분석을 반박한다. 그에 따르면 영어의 ‘poss-ing’에서의 동명사적 명사 ‘-ing’은 어떤 범주로의 변화를 포함한다. 곧 그것이 S의 범주를 N의 범주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ranning, *voweding 등에서 보듯이 영어의 ‘-ing’은 AGR이나 Tense와 함께 나타날 수 없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동명사적 명사의 주어가 소유격을 취한다는 사실 또한 이를 뒷받침 해준다. 그런데 ‘poss-ing’ 구성은 주어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에서 볼 때 범주 변화가 일어나는 단계는 S의 단계이지 동사구 혹은 동사 단계는 아님을 알 수 있다.

(6) *The reading books is fun.

즉, 영어의 동명사적 명사를 내적으로는 S이고 외적으로는 명사구라고 보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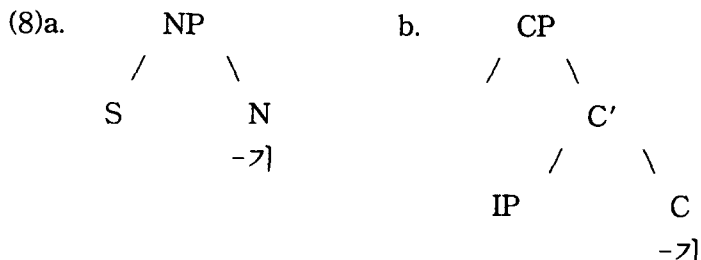
그런데 한국어의 경우는 이와 좀 다르다. 즉, 어미 ‘-기’가 문장 명사화소로 나타날 때에는 영어의 ‘-ing’과 달리 시제와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7) 철수는 [영화가 시험을 잘 보았기를] 바랐다.

‘-기’에 의해 ‘명사화’된 한국어 문장이 시제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범주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강명윤은 실제로 ‘-기’는 명사화소가 아니라 좀더 약화된 의미의 명사구-셸(NP-shell)이라고 주장한다. 즉, 명사구-셸은 그것이 붙은 범주를 변화시킬 필요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구 혹은 S가 격을 부여 받을 수 있기 위해(cf. (7)의 대격표시 ‘-를’) 어떠한 명사적 투사에 의해 ‘덮어야’ 한다는 필요 때문에 있다라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으로, 강명윤은 실제로 ‘-기’의 존재에 대한 또 하나의 동기가 있음을 주목한다. 즉, 기존의 보문소 ‘-고’와 마찬가지로 주절로부터 내포

절을 ‘구별’하는 표준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보문소라는 점이다. 따라서 그는 어떤 일반화된 층위에서는 어미 ‘-기’는 명사구-셀이고(cf.(8a)) 어떤 다른 일반화된 표시 층위에서는 통사적인 보문소 범주(cf. (8b))라고 결론을 내린다.



한편, ‘-기’ 삽입은 Stowell(1981)에 의해 제시된 격저항 원리와 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우선 격저항 원리를 살펴보자.

(9) The Case Resistance Principle

Case may not be assigned to a category bearing Case- assigning feature

한학성(1987)에 따르면 아래에서 보듯이 한국어에서도 격저항 원리가 지켜진다고 말한다.

(10) *우리는 [철수가 자살을 하였다]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Stowell에 따르면 시제문과 부정사절은 [+Tense]를 지닌 요소이다. 그러므로 격이 할당되는 위치에 나타나서는 안될 것이다. 그는 영어에서 (9)의 원리 위반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주제화이고 나머지 하나는 VP에 부착시키는 방법이다. 한편, 한학성은 한국어에서는 영어와 달리 이동이 아닌 허명사(dummy Noun)인 ‘-기/-것/-음’을 삽

입시켜 (9)의 원리를 위반을 회피한다고 주장한다.²⁾

2. 접속법 보문소와 직설법 보문소

스페인어, 까탈란, 이탈리아어 등과 같은 로만스 언어는 동사에 직설법/접속법의 명시적 구분이 나타나는 언어들이다. 예를 들어 동사 hablar(말하다)의 현재 시제 경우를 살펴보자.

(11) a. 직설법(indicative)

1인칭 단수 habla	1인칭 복수 hablamos
2인칭 단수 hablas	2인칭 복수 habláis
3인칭 단수 habla	3인칭 복수 hablan

b. 접속법(subjunctive)

1인칭 단수 hable	1인칭 복수 hablemos
2인칭 단수 hables	2인칭 복수 habléis
3인칭 단수 hable	3인칭 복수 hablen

그런데 주절 동사가 인지 동사인 경우에는 내포절 동사에 직설법이 나타나고 주절 동사가 원망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접속법이 나타난다.

(12) a. Juan dice que María habla/*hable español.

b. Juan quiere que María hable/*habla español.

일반적으로 이 두 법(mood)의 구분은 비실현법(modalidad irrealis)과 실현법(modalidad realis)간의 구분에 근거한다(혹은 단언

2) 한확성은 시제절은 '-것', '-음'을 비시제절에는 '-기'가 쓰인다고 말한다.

(assertion)과 비단언의 구분에 근거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12a)에서 화자는 내포절의 내용이 사실임을 단언하고 있는 것인 반면, (12b)의 경우는 내포절의 내용이 사실임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단순한 바램을 나타내고 있는데 불과하다. 한편, 한국어의 경우도 ‘-고’를 그 핵으로 하는 보어절은 주로 사실이나 화자의 단언을 나타내는 반면, ‘-기’를 핵으로 하는 보어절의 경우는 화자는 그 내용에 대해 단순히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 (13) a. 철수는 [영희가 외무부에서 근무한다고] 말한다.
b. 철수는 [영희가 외무부에서 근무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실제로 ‘-고’를 그 핵으로하는 내포절의 내용이 사실임을 나타내주는데 있어서는 주절 동사의 의미 뿐만아니라 서술 종결어미 ‘-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 (14) 어제 영희가 미국에 갔다.

(14)에서 만약 ‘-다’를 다른 종결 어미 ‘-니’, ‘-자’, ‘-어라’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14)는 더 이상 사실을 의미하지도 않으며 화자 역시 영희가 미국에 간 행위에 대해 단언하지도 않게 된다.

내포절의 경우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주절 동사가 인지동사이고 내포절에 ‘-다’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cf.(15a)), 혹은 다른 종결 어미가 나타나는 경우(cf.(15b)), ‘-고’를 그 핵으로 하는 내포절은 비문이 된다.

- (15) a. 철수는 [어제 영희가 미국에 갔*(다)고] 말했다.
b. 철수는 [영희가 미국에 간다/*가나/*가자/*가라고] 말했다.

우리는 단순히 ‘-고’가 주절 동사가 내포절 내용에 대해 단언을 의미하는 경우에 나타난다고만 말할 수도 있겠으나 그럴 경우 내포절에 ‘-다’

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왜 틀린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한편, ‘-기’를 그 핵으로 하는 보어절은 실제로 사실이거나 혹은 이미 실현된 사실임을 단언하는 것과는 달리 화자의 단순한 희망을 나타낼 뿐이므로 ‘-기’를 그 핵으로 하는 보어절에는 사실을 의미하는 서술종결어미 ‘-다’가 출현할 수 없다.

(16) a. 철수는 [영희가 아프(*다)기]를 바란다.

b. 철수는 [영희가 미국에 갔(*다)기]를 바란다.

즉, (16)은 ‘-기’를 포함하는 내포절이 사실을 나타내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고’를 포함하는 절은 내포절의 내용이 사실이거나 그 내용에 대해 화자가 단언하는 경우에 나타나며 ‘-기’를 포함하는 절은 내포절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단순한 바램을 표현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즉, ‘-고’가 출현하는 절과 ‘-기’가 출현하는 절이 스페인어의 경우처럼 실현법과 비실현법에 따라 구분됨을 보여준다. 스페인어의 경우 전자는 직설법에 의해, 후자는 접속법에 의해 표시된다는 점을 인식할 때 한국어에서 ‘-고’를 그 핵으로 하는 절은 직설법을, ‘-기’를 그 핵으로 하는 절은 접속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고’절과 ‘-기’절은 통사적으로도 차이가 난다. 즉, 아래에서 보듯 대명사화와 관련하여 차이를 보여준다.

(17) a. 아버지께서는 [내가 스페인에서 공부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그것을 원하셨다.

b. ??철수는 [만기가 미국에 갔다고] 말했다. 그리고 영희도 그것을 말했다.

따라서 우리는 ‘-고’는 내포절이 직설법을 표시하는 보문소이고 ‘-기’는 내포절이 접속법임을 표시하는 보문소라고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나 스페인어의 경우는 접속법 사용이 매우 광범위하여 願望-의지 동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사들이 직설법과 접속법을 상황에 따라서 모두 허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우리는 연구 대상을 주로 願望-의지 동사에 국한시키기로 한다.

한국어에서 ‘-기’가 접속법 보문소라는 우리의 가정은 내포절에 나타나는 부정 양화사(Negative Polarity Items: 이하 NPI)의 허가과 관련한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병행성을 통해 더욱 뒷받침 된다. 즉, 아래에서 보듯이 스페인어에서 내포절에 나타나는 NPI의 허가는 내포절이 접속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cf. Kempchinsky(1986), Arnaiz(1992)).

- (18) a. Juan no quería que M comprara nada (SUBJ)
- b. *Juan no dijo que M había comprado nada (IND)
- c. No quiero que venga nadie (SUBJ)
- d. *No he declarado que le presta atención nadie.(IND)

이번에는 한국어의 예를 살펴보자.

- (19) a. 철수는 [영희가 아무것도 사기]를 바라지 않는다
- b. *?철수는 [영희가 아무것도 샀다고] 말하지 않았다.
- c. 철수는 [아무도 식사전에 방에서 나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 d. *?철수는 [아무도 식사전에 방에서 나갔다고] 말하지 않았다

(18a,c)와 (18b,d)간의 대조는 스페인어에서 NPI는 접속법 문맥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접속법 문맥에서만 NPI는 허가 된다.³⁾ 그런데 (19)에서 보듯이 한국어의 경우도 같은 대조가 나타난다. 즉, 주절 동사가 願望을 뜻하고 따라서 보문소 ‘-기’가 나타나는 (19a,c)에서는 NPI가 허가되는 반면, 주절 동사가 인지동사인 (19b,d)의 경우는 NPI가 허가되지 않는다.

3) 내포절의 NPI 허가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4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위에서 살펴본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병행성을 통해 우리는 한국어의 경우에도 내포절에 직설법/접속법 구분이 나타난다고 결론짓기로 한다. 단지 이같은 직설법/접속법 구분과 관련한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차이는 전자의 경우는 접속법이 내포절 동사에 나타나지만 후자의 경우는 동사가 아닌 보문소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내포절의 보문소에 접속법이 표시되어 나타난다는 우리의 주장은 이상할 게 없다. 그 이유로는 첫째, Chomsky(1981)이래 문장의 핵은 INFL 임이 가정되어 오고 있다. 이같은 가정은 접속법 형태소가 INFL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통해 뒷받침 되는 듯 하다. 그런데 내포절의 경우는 그 핵이 C이므로 C에 접속법이 명시되어 나타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다.

둘째, 내포절 보문소에 직설법과 접속법 구분이 나타나는 것은 다른 언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래 (20), (21), 각각 루마니아어, 살렌틴(salentino:이탈리아어의 한 방언)의 예로서 (a)예문들은 직설법, (b)예문들은 접속법을 나타낸다(cf.Kempchinsky(1990)).

- (20) a. Stiu ca' Ana vine astazi
 'Sé que Ana viene hoy'
 b. Nu cred ca ana sa *vina* astazi
 'No creo que Ana venga hoy'
- (21) a. Kritu ka la Maria ene te merkuletia
 'Creo que María viene el miércoles'
 b. Lu Karlu ole ku *bbene* krai.
 'Carlos quiere que venga(3.^a sing) mañana'

다만, 한국어와 달리 이들 언어의 특징은 접속법 보문소가 출현하는 것 이외에 내포절 동사에도 스페인어처럼 접속법 형태소가 여전히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어의 '-기'는 접속법 보문소라고 주장하였다. 이같은 가정하에서 이번에는 이들 보문소가 어떻게 선택되는 과정에 대해 구체

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Kempchinsky(1986,1990)에 따라 우리는 주절 동사가 願望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핵-핵(head to head) 관계를 통해 내포절 보문소에 접속법 운용자가 선택된다고 가정키로 한다. 이 운용자는 다른 운용자처럼 확인(identify) 또는 점검(check)될 필요가 있다. 만약 내포절내에 이 운용자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한다면 이 확인은 Chomsky(1993)의 지연성 원리(Procrastination Principle)에 따라 논리 형태까지 지연된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스페인어이다. 즉, 스페인어는 접속법이 INFL에 명시되어 나타나므로 이 접속법 INFL은 접속법 운용자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명시적 요소이고 따라서 확인을 위한 INFL의 이동은 논리 형태 까지 지연된다. 반면에 한국어의 경우는 스페인어와 달리 접속법이 INFL에 명시되지 않으므로 논리 형태에서 접속법 운용자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요소가 없는 셈이다. 따라서 논리 형태에 도달하기전에 운용자가 확인되어야만 한다. 만약 접속법 운용자가 Spell-out 이전에 확인되지 않고 논리 형태로 넘어가면 도출(derivation)은 합치(converge)되지 않게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같은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어는 ‘-기’의 삽입이 명시적으로 이뤄진다고 가정하고자 한다. 즉, 영어의 there-구문에서 도출의 합치를 위해 there가 삽입되듯 한국어의 접속법 문장에서 도출을 구제하기 위한 최후 수단(last resort)으로서 ‘-기’가 삽입되는 것이다.

3. 이접 지시(disjoint reference effect) 부재에 관하여

우리는 앞장에서 한국어는 서어와 달리 접속법이 동사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문소에 명시적으로 나타난다고 제안하였다. 그런데 서어는 주절 동사가 願望 동사인 경우, 주절 주어와 내포절 주어 사이에 이접 지시 효과가 나타난다.

- (22) a. *El gobierno salvadoreño_i quiere que pro_i entre en negociaciones con la guerrilla.
 b. El gobierno_i salvadoreño quiere PRO_i entrar en negociaciones con la guerrilla.
 (Kempchinsky(1990:234))

그러나 스페인어와 달리 한국어는 주절 주어와 종속절 대명사류 주어간의 이접 지시가 의무적이지 않다.

- (23) a. 미국정부_i는 [[e]_{i/j} 게릴라와 협상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b. 철수_i는 [[e]_{i/j}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직설법/접속법의 구분이 한국어에서도 명시적으로 이뤄진다는 우리의 주장이 옳다면 왜 이같은 대조가 나타나는가? 결론을 앞당겨 말하자면 우리는 이같은 대조가 접속법절의 시제(Tense)의 위상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즉, 이같은 대조는 스페인어의 경우는 접속법절의 시제가 독립적이지 못한 반면(cf. Raposo(1986), Picallo(1985), 등), 한국어의 경우는 접속법절의 시제가 독립적인 점에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우선 스페인어의 경우를 살펴보자.

- (24) a. Desea que lleve/haya llevado un libro.
 b. Desea que *llevara/*hubiera llevado un libro.
 (25) a. Deseó que *lleve/*haya llevado un libro.
 b. Deseó que llevara/hubiera llevado un libro.

위에서 보듯이 접속법으로 된 종속절은 비록 형태적으로 [+/-past]를 위한 표시자를 지니고 있지만 이 표시자는 주절의 시제에 종속되어 있다. 왜냐하면 주절이 현재이면 종속절은 과거/대과거는 불가능하고, 주절이 과거이면 현재/현재완료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접속법 형태

의 시제 명시(tense specification)와 주절의 그것과의 관계는 대용사와 선행사의 관계에 비유될 수 있어서 접속법 INFL은 실제로 자신 스스로는 시제를 나타낼 수 없고 주절 시제로부터 자신의 시제적 가치를 할당 받는다.⁴⁾ 그러므로 접속법 절의 시제 명시는 상위절의 시제 표시(tense-marking)의 통사적 결과로 간주된다. 그리고 [+/-past] 형태소는 어떤 의미에서 대용사를 표시하는 ‘-self’와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접속법절은 [-Tense]이다. 그런데 결속과 관련한 불투명 영역(opaque domain) 형성에 관여하는 것은 [+Tense]이다. 따라서 [-Tense]인 접속법절의 주어의 결속 영역은 주절로 확대되고 따라서 (22)의 대명사류 주어는 결속 원리 (B)에 따라 이 결속 영역 내에서 주절 주어와 같은 지시를 가질 수 없다.

한편, 한국어의 경우는 시제가 법, 상과 워낙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시제, 법, 상의 문법범주의 확실한 경계를 긋기가 어렵다. 따라서 시제의 구분이 있다고 보는 학자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예를 들자면, 최현배(1937)는 한국어에 12시제가 있다고 보는 반면, 남기심(1975)은 한국어에는 시제를 나타내는 형태소가 없다고 주장한다. 박영순(1993)은 한국어의 시제는 최현배가 주장하는 것처럼 12시제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지도 않고, 남기심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시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지으면서 최소한 현재, 미래, 과거, 과거완료 정도는 거의 선명하게 구분된다고 말한다. 이같은 견해를 따라 우리는 아래와 같이 한국어 시제의 형태소를 가정하기로 한다.

- (26) a. 현재: ㄴ (예: 공부한다), 무반침(예: 날씨가 춥⁰다/따뜻하⁰다)
 b. 과거/현재완료: 았
 c. 과거완료: 았었/였었
 d. 미래: ㄹ
 e. 미래, 화자의 의지, 미지: 겠

4) 스페인어의 접속법의 시제가 독립적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Kempchinsky(1986, 1990), Rivera & Suñer(1990)을 참조하기 바란다.

f. 진행(현재진행/과거진행): ‘고 있’

한국어에 시제의 구분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아래 세 가지의 논의를 통해 접속법의 시제가 독립적이라고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스페인어의 경우와 달리 願望 동사의 종속절 시제는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매우 독립적이라는 사실이다.

- (27) a. 철수는 [영희가 책을 가져가기]를 바란다.(현재)
 b. 철수는 [영희가 책을 가져갈 것]을 바란다.(미래)
 c. 철수는 [영희가 책을 가져갔기]를 바란다.(과거/현재완료)
 d. 철수는 [영희가 책을 가져갔었기]를 바란다.(과거완료)
- (28) a. 철수는 [영희가 책을 가져가기]를 바랬다.(현재)
 b. 철수는 [영희가 책을 가져갈 것]을 바랬다.(미래)
 c. 철수는 [영희가 책을 가져갔기]를 바랬다.(과거/현재완료)
 d. 철수는 [영희가 책을 가져갔었기]를 바랬다.(과거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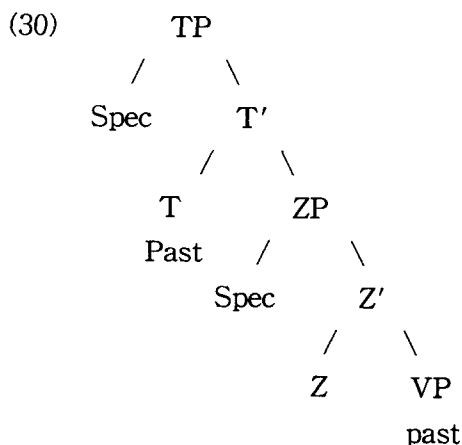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한국어의 경우는 주절 시제가 현재인 경우에도 내포절에 과거, 과거 완료 시제가 가능하고(cf.(27c,d)) 주절 시제가 과거인 경우에도 현재, 미래 시제가 가능하다(cf.(28a,b)). 이것은 한국어의 접속법 보문의 경우는 그 시제가 주절과는 독립적임을 시사해준다.

둘째, 이번에는 한국어 접속법의 시제가 독립적이라는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제 해석과 관련한 Stowell(1993) 논의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에 따르면 아래 (29)의 문장은 시제와 관련된 해석에 있어서 중의적이다.

(29) John said that Bill was si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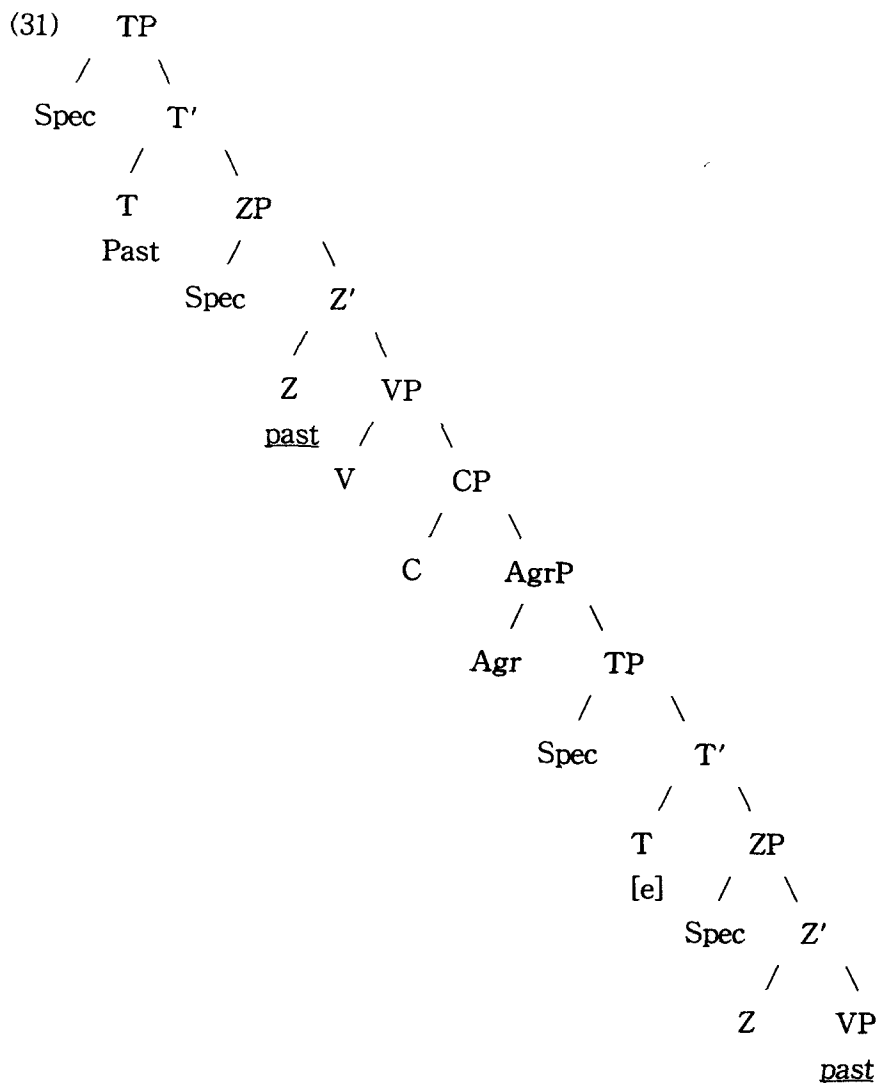
즉, (29)의 문장은 다음 두 가지 해석을 지닌다:(i) ‘과거-전환해석(past-shifted reading)’ : 이 경우에는 내포절의 사건 시간(event time)이 주절의 그것보다 선행한다. (ii) 동시해석(simultaneous reading:이하

SIM): 내포절의 사건 시간이 주절의 그것(the time of John's saying)과 동시인 경우이다. Stowell은 past 형태소((29)의 경우 said, was)는 실제로는 Tense가 아니라 아래에서 보듯이 Tense의 보어인 ZP의 핵 위치 나타나는 일종의 양화성 요소(Past Polarity Item)이며 따라서 T에 있는 (null) Past에 의해 아래에서 보듯이 성분 통어(c-command)되어야 한 허가된다고 제안한다. 아래 (30)은 (29)의 주절의 구조이다.⁵⁾



Stowell은 보문절이 T에 Past를 지니는 경우에는 Past가 Z에 있는 past를 성분 통어하게 되어 ‘과거-전환 해석’이 도출되고 보문절이 T에 Past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혹은 Present 출현시)에는 주절의 T에 있는 Past가 내포절 Z의 past를 허가하여 SIM 해석이 도출된다고 말한다. 즉, (29)의 SIM 해석을 위한 구조는 아래와 같다.

5) Stowell은 Tense는 시간들(times)간의 시간적 순서(temporal ordering) 관계를 표시해주는 일종의 술어로 간주한다. Tense의 공외적 논항(null external argument: TP Spec)은 발화 시간(utterance time)을 그리고 Tense의 내적 논항(internal argument: ZP)은 사건 시간(event time)을 나타낸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29)의 예문이 SIM 해석을 지니는 경우는 내포절의 T에 Past가 없음을 의미하고 ‘과거-전환 해석’을 받는 경우에는 내포절 T에 독립적인 Past가 있음을 의미한다.

위의 논의를 고려하면서 이번에는 (29)에 상응하는 한국어의 예문을 살

펴보자. 우리의 가정에 따라 아래 예문 (32a)는 직설법 보문절을 (32b)는 접속법 보문절을 지닌 문장이다.

- (32) a. 철수는 [영희가 아팠다고] 말했다.
 b. 철수는 [영희가 아팠기]를 바랬다.

위의 두 문장은 (29)의 예문과는 달리 오직 ‘과거-전환 해석’ 만이 가능한 비중의적인 문장이다. 즉, 내포절의 사건 시간이 주절의 그것에 선행하는 해석만이 가능하다. (33), (34)는 이같은 사실을 잘 보여준다(cf. Han(1991)).

- (33) a. *그제 철수는 [영희가 어제 아팠다고] 말했다.
 b. 어제 철수는 [영희가 그제 아팠다고] 말했다.
 (34) a. *그제 철수는 [영희가 어제 아팠기]를 바랬다.
 b. 어제 철수는 [영희가 그제 아팠기]를 바랬다.

이처럼 오직 ‘과거-전환 해석’ 만 가능하다는 사실은 (32a,b)의 past 형태소 ‘-ㅆ’은 양화적 요소가 아닌 진짜 Past tense의 실현임을 보여준다. 즉, 만약 past 형태소 ‘-ㅆ’이 양화적 요소라면 (29)의 경우처럼 주절의 T의 Past에 의해 성분통어 됨을 통해 SIM 해석 또한 가능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Stowell(1993:3) 역시 일본어나 러시아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과거시제 형태(past tense morphology)가 Past의 영역(scope)하에서 Z에 나타나는 양극적 요소의 실현이라기 보다는 진정한 Past tense의 실현이라고 말할을 비추어 볼 때 일본어와 유사한 한국어도 같은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의 주장은 옳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우리는 한국어 접속법 내포절은 시제가 독립적([+Tense])이라고 결론짓기로 한다.

한편, 이같은 결론은 왜 원망 동사에 의해 선택된 접속법 보문소 ‘-기’ 뒤에는 소위 격표시자로 간주되는 ‘-를’이 나타나고 직설법 보문소 ‘-고’

뒤에는 이같은 표시자가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준다(cf. (1a)와 (1b)간의 대조를 주목하기 바란다). Raposo(1987)에 따르면 인지 술부(pensar, believe)와願望 술부는 둘다 CP를 보어로 취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지만 전자의 경우는 시제를 지닌 명제적 보어(propositional complements with TENSE)를 요구하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시제를 지닌 CP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같은 그의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한국어의 경우는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어 접속법절의 시제는 스페인어의 그것과 달리 [+Tense]이기 때문에 접속법 보문소를 핵으로 하는 내포절이 원망 동사 뒤에 막바로 출현시에는 [-Tense] CP를 요구하는 주절 동사의 선택 제약을 위반하여 비문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접속법 보문소 뒤에 ‘-를’이 출현하는 것은 이와 같은 문제를 회피하기 위함이라고 제안코자 한다. 즉, ‘-를’은 명사구 뒤에 붙어서 나타나는 요소이고 명사구는 [-Tense]이므로 이들 접사 역시 [-Tense]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로 하자. 원망 동사는 [-Tense] CP절을 그 보어로 요구하므로 ‘-를’의 출현은 [-Tense] 선택 제약을 만족시켜 준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자면 ‘-를’의 출현은 격 요구 사항 때문이 아니라 주절 동사의 선택 제약 중 일부([-Tense])을 만족시켜주기 위함이다.

한국어 접속법절의 시제가 독립적이라는 가정하에 이번에는 앞서 언급한 이접 지시 문제로 돌아가 보기로 하자. 우리는 Progovac(1993)의 제안에 따라 한국어의 이접 지시 부재는 결속 이론이 적용되는 층위인 논리 형태(cf. Chomsky(1993))에서 시제가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제안하고자 한다. 즉, 접속법 내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와 관련하여 독립적이지 않으면 내포절의 Infl/Comp가 논리 형태에서 지워져서 그 결속 영역이 주절로 확대되고, 접속법 시제가 독립적 혹은 지시적(referential)(cf. Picallo(1985))이면 내포절의 Infl/Comp가 논리 형태에서 지워지지 않아 결속 영역이 확대되지 않는다. 접속법 시제가 주절 시제에 의존하는 경우에 내포절의 Infl/Comp 투사 삭제가 가능한 이유는 접속법 시제가 주절 시제에 의존하여 따라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 원리에 따라 이들 투사는 논리 형태에 지워진다.⁶⁾

이같은 제안하에서 이접 지시 문제와 관련한 스페인어와 한국어간의 대조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스페인어의 경우는 접속법 시제가 주절 시제에 종속되기 때문에 우리의 제안에 따라 내포절의 Infl/Comp 투사가 논리 형태에서 삭제되고 따라서 이 층위에서 결속 이론이 적용되었을 때 결속 원리⁷⁾ (B)의 적용을 받는 대명사류 주어(영주어, 명시적 대명사)는 같은 결속 영역내에 있는 주절 주어와 공지시 될 수 없다. 반면에, 한국어는 접속법 시제가 독립적(회복 불가능)이므로 Infl/Comp 투사가 논리 형태에서 지워질 수 없고 따라서 결속 영역의 확대는 이뤄지지 않으므로 내포절 주어의 지시는 자유롭다는 사실이 설명된다.

4. 내포절 NPI의 허가

한편, Progovac(1993)에 따르면 독립적인 시제나 가치의 부재로 인한 Infl/Comp 삭제는 내포절에 나타나는 NPI의 허가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NPI의 분포와 해석은 재귀사와 대명사와 마찬가지로 결속 이론의 지배를 받는다. 다만, 재귀사, 대명사와 NPI 간의 차이는 후자는 일종의 A'-대용사(anaphor)로서 지배 범주 내에서 첫 번째 잠재적 선행사 A'-결속된다는 점이다(cf. Aoun(1986)). NPI의 A'-결속자로는 Infl에 있는 부정사(negation) 또는 Comp에 있는 양화

6) Progovac은 Infl 및 Comp 투사의 삭제로도 볼 수 있고 Infl 투사만의 삭제로도 볼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결속 영역의 확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 두 투사가 모두 지워져야한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7) 결속 원리에 관련된 정의에 관해서는 우리는 촘스키(1993:43), Chomsky & Lasnik(1991:65)를 따르기로 한다.(여기서 D는 관련된 국부 영역(relevant local domain)을 의미한다.)

(A). If α is an anaphor, interpret it as coreferential with a c-commanding phrase in D.

(B) If α is a pronominal, interpret it as disjoint from every c-commanding phrase in D.

(C) If α is an r-expression, interpret it as disjoint from every c-commanding phrase.

(polarity) 운용자이다. 이 양화 운용자는 의문, 조건, 反意 술부 (adversative predicates)의 보어에 있는 NPI의 허가와 관련이 있다. 아래 (35a,b)을 살펴보자. (35a)는 불어, (35b)는 이탈리아어 예문이다.

(35) a. ?Je n'ai exigé qu'ils arrêtent personne.

I NEG-have required that they arrest(SUB) nobody.

b. Non pretendo che tu arresti nessuno.

NEG require-1SG that you arrest(SUB) no-one.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35)에서 NPI가 허가 되는 이유는 접속법 보어절은 논리 형태에서 Infl/Comp가 지워지므로 영역이 첫 번째 직설법절로 확대되고 이 영역 내에서 Infl에 있는 부정사에 의해 A'-결속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같은 설명대로라면 앞의 한국어의 예문 (19)(여기선 (36)으로 반복)의 문법성은 문제가 되는 듯 싶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어의 접속법 시제가 독립적이라고 가정하므로 Progovac 방식대로라면 (36)의 경우도 Infl/Comp 투사가 논리 형태에서 지워질 수 없고 따라서 NPI의 결속 영역이 주절로 확대되지 않아 (36)은 결속 원리 (A) 위반으로 비문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36) a. 철수는 [영희가 아무것도 사기를] 바라지 않는다.

b. 철수는 [영희가 아무것도 샀기를] 바라지 않는다.

c. 철수는 [영희가 아무것도 샀었기를]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이같은 문제를 설명하기 이전에 우선 한국어의 NPI 허가에 대해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37) a. 철수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b. *철수는 아무도 만났다.

- (38) a. 철수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b. *?철수는 [아무도 만났다고] 말하지 않았다.

(37)은 한국어의 NPI ‘아무도’는 허가되기 위해서는 부정사 ‘안/아니’의 출현을 필요로 함을 보여준다. (38)은 ‘아무도’는 자신의 허가자인 ‘안/아니’와 같은 절내에 출현해야만 함을 보여준다. 즉, 국부적(local) 관계에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38)과 달리 (36)에서는 부정사와 NPI가 같은 절내에 출현하지 않아 국부적 조건을 어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문이다. 이같은 현상과 관련하여 Laka(1990)는 내포절의 NPI를 허가하는 것은 주절의 부정 또는 부정 동사가 아니라 이들에 의해 선택된 부정 보문소(negative comp)이며 그리고 구체적인 허가는 SS에서 성분 통어를 통해 이뤄진다고 주장한다.⁸⁾

- (39) ... neg/negative verb[that NPI]

[+neg]

c~command

이같은 Laka의 제안은 (36)이 나타내는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주는 것 처럼 보인다. 즉, Laka에 따라 (36)에서 주절의 부정사 ‘아니’는 내포절의 보문소에 [+Neg] 운용자를 선택하고 이 선택된 운용자는 다시 내포절내에 있는 NPI를 성분 통어를 통해 허가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은 (38b)의 비문법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즉, 단순히 주절의 부정사에 의해 선택된 부정 보문소가 NPI를 허가한다면 (38b)도 정문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rogovac의 제안과 Laka의 제안을 조합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즉, 다음과 같이 가정하기로 한다.

첫째, 주절의 부정사는 내포절 보문소에 부정 보문소를 선택한다.

8) Laka 주장에 대한 반론은 Uribe(1994)를 참조하기 바란다.

둘째, NPI는 결속 원리의 지배를 받는 일종의 A'-대용사이며 이 A'-결속자는 부정사 또는 부정 보문소이다. 그리고 결속 이론은 논리 형태에서 적용된다(cf. Chomsky(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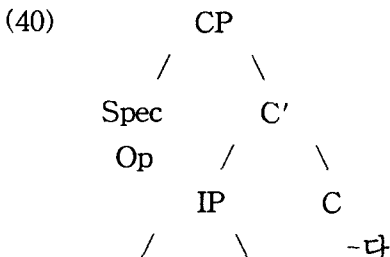
셋째, 허가자인 부정 보문소와 피허가자 NPI간의 관계는 국부적이어야 한다.

이같은 가정을 염두에 두고 (36)과 (38b)를 다시 살펴보자. ((36)의 예문 중 편의상 (36a)만 설명키로 한다.)

(36a) 철수는 [영희가 아무것도 사기를] 바라지 않는다.

(38b) *?철수는 [아무도 만났다고] 말하지 않았다.

(36a)와 (38b)의 차이는 전자의 경우는 내포절 동사(실제로는 Infl)와 접속법 보문소 '-기' 사이에 아무런 요소가 끼어있지 않음에 반해, 후자의 경우는 동사와 보문소 '-고' 사이에 문장 유형을 말해주는 서술 종결 어미 '-다'가 끼어있다. 그런데 심상완(1993), Whitman(1991) 등에서는 아래 (40)에서 보듯이 한국어의 문장 종결 어미 '-다', '-니', '-라', '-자'는 Infl에서 생성되는 요소가 아니라 보문소 위치에서 기저 생성된다고 주장하였다.⁹⁾¹⁰⁾



9) 문장 종결 어미가 Infl에서 기저 생성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확성(1987), 문귀선(1989), 김수원(1989) 등을 참조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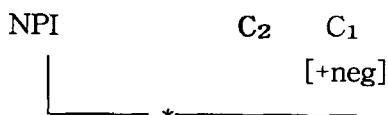
10) 우리는 (40)에서 지정어 위치에는 C와 지정어-핵 일치할 하는 추상적인 운용자가 위치한다고 가정키로 한다(cf. Aoun & Li(1993)).

만약 이같은 주장이 맞다면 (38b)의 경우에는 부정 보문소와 NPI 사이에 아래에서 보듯이 또 다른 CP 투사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41)은 (36)를, (42)는 (38b)를 각각 나타낸다.

(41) 철수는 [[영희가 아무것도 사]_{IP-기}]_{CP-}를 바라지 않는다.



(42) 철수는 [[영희가 아무것도 샀]_{IP-다}]_{CP-고}]_{CP} 말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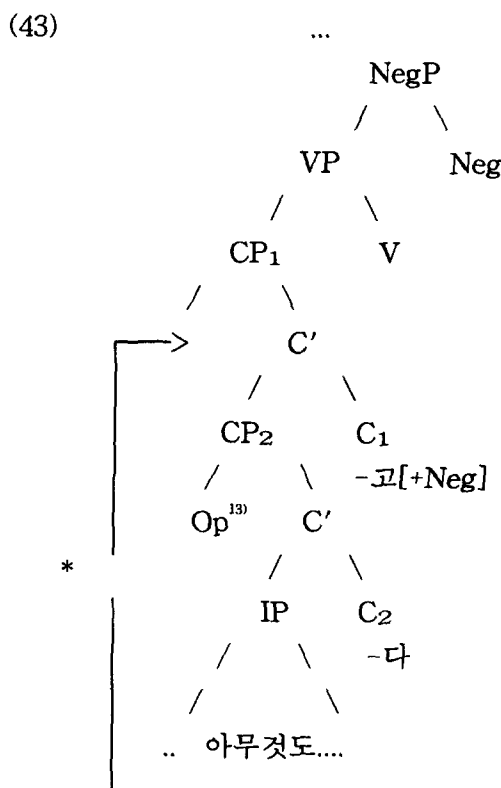


(42)에서는 NPI와 부정 보문소 사이에 또 다른 CP 투사가 끼어 있다(‘-고’를 핵으로 하는 CP절과 구분키 위해 이를 CP₂라 부르기로 하자). 따라서 부정 보문소가 NPI를 성분 통어하지만 두 요소간의 관계가 국부적이지 않다. 따라서 우리의 두 번째, 세 번째 가정을 위반한다. 그러므로 결속 원리(일반화 결속 이론) (A) 위반으로 비문이다. 반면 (41)에서는 이같은 CP₂ 투사가 없으므로 두 요소간의 관계는 국부적이고 따라서 부정 보문소가 NPI를 A’-결속할 수 있어서 결속 원리 (A)를 만족시키므로 (36a)가 정문인 것이 잘 설명된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접속법 보문소를 지닌 (36)과 직설법 보문소를 지닌 (38b)간의 문법성의 대조는 두 경우에 있어서 주절 술부가 부정 보문소를 선택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부정 보문소와 NPI가 국부적 관계에 있지 않아 결속 원리 위반으로 비문이 된다.

우리의 이같은 설명은 NPI가 논리 형태에서 이동을 한다는 가설(cf. Bosque(1992), Lineberger(1981), Progovac(1992), etc)하에서도 유지될 수 있다. 즉, NPI가 허가되기 위해서는 그 허가자(부정사 또는 부정 보문소)

와 지정어-핵 위치에 있어야만 한다고 가정한다면 (38b)의 부정 양화사는 아래에서 보듯이 부정 보문소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이동에 있어서 중간의 보문소 '-다'를 그 핵으로 하는 CP는 L-표시(L-marked)되지 않은 장벽이어서 부정 양화사사 보문소 '-고'를 그 핵으로 하는 CP의 지정어로 이동할 경우에는 하위 인접 조건(subjacency)을 어기게 된다(cf. Chomsky(1986)).¹¹⁾¹²⁾



11) 설명 허가자가 주절에 있는 부정이라 한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12) Rizzi(1990)의 상대적 최소성 위반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13) 우리는 지정어 위치에는 C와 지정어-핵 일치룰 하는 추상적인 운용자가 위치한다고 가정기로 한다(cf. Aoun & Li(1993)).

반면에 (36)의 경우는 부정 양화사가 이동을 하더라도 중간에 이같은 장벽이 끼어있지 않음으로 하위 인접 조건을 어기지 않아 정문임이 설명된다.

5.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에도 로맨스 언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설법/접속법의 명시적 구분이 있으며 단지 이러한 구분이 Infl에 나타나는게 아니라 보문소에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이같은 접속법 보문소 존재의 가정하에서 우리는 주절의 술부가 원망 동사인 경우 한국어에서는 왜 이접 지시 효과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어의 접속법절의 시제는 스페인어의 경우와 달리 독립적이어서 내포절 스스로 결속 영역을 형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셋째, 접속법절에 나타나는 부정 양화사의 허가와 관련한 직설법절과 접속법절간의 대조는 직설법절은 이중 보문소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설명하였다.

참 고 문 헌

- Arnaiz, A. (1992) "On the Parallelism between N-words and Wh-in-situ in Spanish", ms, USC
- Bosque, I. (1992) "La Negación y el Principio de las Categorías Vacías", ms.
- Chomsky, N. (1986) *Barriers*, MIT
- Chomsky, N. (1993)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A

- View From Building 20", MIT
- Chomsky, N. & H. Lasnik(1991), "Principles and Parameter theory", ms
- Han, D. W. (1991) *A Study on the Tense of Korean*, Sogang Univ. Ph. D. dissertation
- Han, H. S. (1987) *The configurational Structure of the Korean Language*, Univ. of Texas at Austin, Ph. D. dissertation
- Hong, J. S. (1983) "Nominalizer '-um' & '-ki'", *Language* vol 8, No 2, 241-272
- Kang, M. Y. (1988) *Topics in Korean syntax: Phrase Structure, Variable Binding and Movement*, MIT Ph. D. Dissertation
- Kempchinsky, P. (1990) "Más sobre el efecto de referencia disjunta del subjuntivo"
- Laka, I.(1990) *Negation in syntax: on the Nature of Functional Categories and Projections*, MIT
- Laka, I.(1992) "Sobre subjuntivos sin efectos de obviación referencial del sujeto", ms.
- Park. Y. S. (1993) *Modern Korean syntax*, Chip Moon Dang, Seúl.
- Picallo, C. (1985) *Opaque Domains*, Ph. D. dissertation, CUNY
- Picallo, C. (1990) "El nudo FLEX y el parámetro de sujeto nulo"
- Progovac, L. (1992) "Negative polarity: A semantico-syntactic approach", *Lingua* 86, 277-299
- Progovac, L. (1993) "Subjunctive: the (mis)behavior of anaphora and negative polarity", *Linguistic Review* 10, pp.37-59
- Raposo, E. (1986) "Some Asymmetries in the Binding Theory in Romance", *Linguistic Review* 5, 75-110
- Raposo, E. (1987) "Case Theory and Infl-to-Comp: The Inflected Infinitive in European Portuguese", *LI* 18
- Shim, S. W. (1993) "Estructura de doble SComp en coreano", ms, UAM

- Shim, S. W. (1994) "Acerca del complementador en coreano", ms, UAM
- Stowell, T. (1993) "Syntax of Tense", ms
- Uribe-Etxebarria, M.(1994) "On [Neg(ative)] complementizers",
presentado en *IV Colloquium on Generative Grammar*,
Tarragona.
- Whitman, J. (1991) "String Vacuous V to COMP", GLOW

RESUMEN

El principal objetivo de este trabajo estriba en mostrar que el coreano, que hasta ahora se ha considerado una lengua sin forma de subjuntivo, también distingue el subjuntivo del indicativo como las lenguas romances, aunque esta distinción no aparece en Infl sino en Comp. Proponemos que ‘-ki’ es un complementante de subjuntivo, mientras que ‘-ko’ es un complementante de indicativo.

Teniendo en cuenta esta suposición, hemos intentado dar cuenta del contraste entre el español y el coreano con respecto al efecto de referencia disjunta: el Tiempo de subjuntivo en español es dependiente del de la cláusula matriz, y, por tanto, el dominio de ligamiento del sujeto pronominal de la cláusula incrustada se extiende a la cláusula principal, mientras que el Tiempo de subjuntivo en coreano es independiente, y, por eso, el dominio opaco del sujeto pronominal de la cláusula incrustada no se extiende a la cláusula principal. La ausencia de dicho efecto en este idioma se debe a esto.

Por último, hemos intentado explicar el contraste entre las cláusulas de indicativo y las de subjuntivo con respecto a la legitimación de Términos de Polaridad Negativa (TPN): en las cláusulas de indicativo la partícula ‘-ta’ es el núcleo de SComp(SC₂), lo que impide la legitimación del TPN en las cláusulas incrustadas. En cambio, en las cláusulas de subjuntivo esta partícula no existe, y por tanto el TPN es legitimado por el comp negativo.